

## 광주시, 문화교육센터 운영 특정단체 위탁 추진 의혹

### ‘문화재단 일임’ 정부방침 전국 유일 거부 문화계 인사 “내부문건 거론 업체 부적절”

광주시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센터) 운영을 특정단체에 위탁하려는 취지가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최근 ‘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한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재단에 장기위탁이 필요하다’는 문광부의 협의요청

재지정시(2013년 12월 기한 만료) ‘00 문화재단’ 추천 검토”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건은 광주시 내부 검토 문서로, 해당 재단은 문화잡지 발행, 문화답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광주시가 최근 정부의 방침을 거부한데다 문건의 내용으로 미뤄 특정단체에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의 경우 3년째 문광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도록 2년마다 재지정 방식이 아닌 상설기구로의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12개 지자체 중 광주시만 동의하지 않고 재지정 요건을 유지해 사업의 연속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인화 시의원은 “공무원이 자기 판단으로 교육센터를 특정단체에 넘기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특정기관 내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현재 광주문화재단은 남구

구동에 있고 교육센터는 사동에 있어 운영 및 관리에 부실을 초래하는 데다 문화재단의 센터운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기훈 지역문화 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재단과 센터의 건물이 떨어져 있어 관리가 부실하고, 재단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시의 주장대로라면 시청내 산하 모든 기관이 한 건물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으며, 정부 평가

에서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교육센터 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광부의 지침을 거부하면서까지 위탁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은 광주시 문화행정의 비민주적·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라며 “문화재단의 교육센터 위탁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특정단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화계 인사는 “교육센터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인력을

양성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의 능력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운영해야 하는게 맞다”며 “시가 내부문건에서 거론한 문화재단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광주시가 출연해 설립한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011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학교 예술감사 파견,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 사업 등을 벌여왔으며 올해 29억원(국비 50% 시비 50%)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추수 끝난 들녘 벗짚 뭉기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인 30일 영광군 법성면 지장마을에서 농부들이 추수가 끝난 논에서 벗짚을 묶고 있다. 벗짚은 소 사료로 쓰이거나 인삼밭 등으로 보내져 보온용(바림막)으로 활용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경제성 같은 철도건설, 호남은 중단 영남은 계속

### 2009년 감사원 타당성 재검증 권고 받은 5곳 보성~임성리 '제자리' 영남 4곳은 공사 착착

건설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로 재검증 권고를 받은 5개 철도 건설사업 중 호남지역 철도만 공사가 중단되고 영남지역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30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감사원이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5개 철도 건설사업 중 영남지역 4개 건설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호남의 보성~임성리 건설은 지난 2003년에 착공하고도 2007년 이후 6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2009년 문제 삼았던 5개 사업의 B/C(비용/편익)는 대략 비슷했으며 특히 보

성~임성리 사업과 포항~삼척 사업은 B/C가 각각 0.61과 0.62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영남 4개 사업은 추진되고 호남은 현재 중단돼 예산 투입과 공정률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포항~삼척 사업은 지난 2008년 3월 착공 이후 592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정률 18.3%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2003년 12월 착공된 보성~임성리 사업은 10년이 지났어도 겨우 757억원의 예산만 투입돼 공정률 5.7%에 머물고 있다. 또 울산~

포항~삼척 철도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조5942억원인데 반해 보성~임성리 사업은 1조3083억원 규모다. 하지만 보성~임성리 철도는 예산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포항~삼척은 2008년 착공 이후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토부 요구안보다 증액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국토부는 포항~삼척 구간 예산에 82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결과 무려 1103억원 증액된 1924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성~임성리 구간은 국토부가 내년 재차공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김병조 교수

## 항상 배려하고 미안해 하는 ‘어머니 리더십’을 배우자

“여러분도 어머니처럼 사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그랬듯 직원들을 서로 배려하고, 미안해 하고,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개그맨에서 ‘명심보감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방송인이자 한학자인 김병조 조선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29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에서 회원들에게 배려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김 교수는 이날 ‘명심보감(明心寶鑑)’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스타 개그맨에서 한학자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역정, 자신의 인생철학을 명심보감 구절들을 인용해 들려줬다. 그는 시종 재치있는 입담으로 장내를 웃음 바다로 만드는 등 고풍과 감동, 재미가 어우러진 강의로 박수를 받았다.



공자의 가르침이다.  
김 교수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한자의 나눔 배·좌·배, 열려할 러로 이뤄진 바로 ‘배려(配慮)’라며 “상대를 염려하는 것,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를 걱정하는 것, 친구를 염려하는 것, 그것이 자식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수시 2차모집  
2013년 11월11일(월)~15일(금)  
정시모집  
2013년 12월19일(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062)605-1114

www.region.go.kr

# 대한민국 지역민을 위한 행복정책,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 HOPE

지역민 중심의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지역민의 행복이 대한민국 행복의 시작입니다.

- Happiness 주인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
- Opportunity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
- Partnership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
-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희망프로젝트, 지역발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